

민 지 실 음 혜 천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を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매달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및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부처님 오신 날 칠일 기도 입재 및 연등 만들기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매달 둘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오후 2시 - 4시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erdag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이달의 법구경

항상 자기 행위 살피는 사람,
 밤낮으로 공부하는 사람,
 열반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서
 모든 번뇌 떠난다네.

Those who are for ever watchful, who study
 themselves day and night, and who wholly
 strive for NIRVANA, all their passions pass
 away.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9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선각스님 “기적은 내가 만든다”

22 일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한국후원회 정기법회 봉행



▲선각 스님은 이날 기적은 내가 만든다는 주제로 법문을 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최초 한국 사찰 불국사(주지 선각)는 3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 공연장에서 한국 후원회 정기 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한 40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해외포교에 뜻을 전하는 법회였다.

혜총 스님은 “3억 명의 미국인 중 300만 명이 오계를 수지, 참선인구는 1000만 명에 달하고 불교 영향을 받은 인구는 2500만인 상황에서 한국불교포교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모든 불자들의 한마음으로 일해 달라”고 격려했다.

‘기적 (Miracle)은 내가 만든다’라는 주제로 연 법문에서 선각 스님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의지로써 한계를 넘어서고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며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 불자들이 세계화된 의식의 필요성과 불교포교를 통한 수행정진과 포교의 이상을 역설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한국사찰 불국사 한국 후원회 정기 법회가 3월 22일 오후 2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 공연장에서 봉행됐다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한편,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2002년 불국사를 창건한 후 부다나라 후원회인 "불국회"는 창단 8년을 기념해 해외 포교의 경험담을 실은 "부다나라" 창간호를 발간했다.

현대불교 3월 24일

출가 (出家)를 통해 얻는 진정한 행복

2009년 3월 중앙일보 종교 칼럼 부다나라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 스님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4대 명절이 있는데 바로 부처님이 이세상에 태어난 날, 왕궁과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라 할 수 있는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가기 위해 출가한 날,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성취한 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진 육신이 그 기능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갔으니 완전한 해탈지견과 적멸의 성취라 할 수 있는 열반을 하신 날 등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4가지 명절 중에 출가재일은 3월 4일(음력 2월 8일), 열반재일은 3월 11일(음력 2월 15일)이니 같은 달에 위치하고 날짜로도 약 일주일 밖에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은 출가는 시작이고 열반은 끝맺음이라고 봤을 때 시작도 그 마지막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다.

부처님이 출가함으로써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교단이 성립이 되고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되는 시작이 되었다. 부처님의 출가는 자기자신의 행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주고 같이 체험하고 궁극에는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성의 종자의 싹을 틔어 주고 싶어한 대자대비심에서 비롯되었다.

내가 가진 명예, 소유, 재산, 인연,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수행의 길로 떠나서 처절하리 만치 자신을 버리는 수행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시 중생들에게 돌리는 것이 출가이다. 버림으로써 마침내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출가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 그리고 안위를 위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르침을 세상을 위해 쓰고자 잠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락약세에 몰들었다 생각하는 세상,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흥가분하게 벗어 버리자 떠나는 길이 아닌 것이다. 버림으로써 비로소 가질 수 있고 놓음으로써 행복해 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출가이다.

불교경전 ‘중지부’에는 “출가는 ‘집을 나감’이다. 집이란 때 묻고 얼룩진 낡은 껍질을 의미한다. 헛된 욕망과 거짓된 즐거움으로 충만한 이 세상과 그 속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면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수레바퀴에 끌려가는 나와 당신의 낡은 생각과 낡은 생활의 껍데기가 곧 집이다.” 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러면 출가는 세속을 등지고 수행하는 스님들만의 전유물이고 세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을까? 만해 스님은 “출가의 진의는 가족을 떠나고, 산중에 들어가는 형식을 말함이 아니라, 보리심을 발하여, 낡은 고집을 떠남”이라고 정의 했다. 몸은 비록 세속에 살지만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고자 매일 정진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함으로써 고집과 아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비심을 내어 아량을 베풀고 남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몸은 비록 세속에 살고 있다 해도 마음을 닦는 출가라 할 수 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생활, 세상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생활, 결국은 세상에 문제가 있어 삶이 고달프다 하지만 그 문제는 결국 내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수행이 결실을 맺은 후에는 출가하기 전에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 가서 세상의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힘닿는 만큼 깨달은 만큼 세상에 돌려 주고, 세상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출가의 결과이다.

한국을 떠나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모든 시간을 학업에 열중하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가장 큰 이유를 미래에 자신이 이세상에 우뚝 서서 가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 자신이 갈고 닦은 학문을 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모은 재산들을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훌륭한 사람들처럼 말이다.

봉 축 기 도

온 누리에 가득하신 광명의 부처님,
정갈한 마음으로 향 사르며 공양하오니
한 줄기 향연이 법계에 가득하여
부처님 회상 상서롭게 장엄하여지이다.

저희가 무량한 세월 착한 인연 뿌리내려
금생에 ‘부처님 만남’의 꽃 피웠습니다.
이제 가냘픈 신심이나마 여린 가슴에
초발심의 촛불되어 타오르고 있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직 한 가지 중생을 청정케 하시고
큰 깨달음의 길 열어 보여 주시려는 원력으로
사바에 나투신 그 ‘오심’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찬란한 오월 떨리는 감격으로 님을 맞사옵니다.
크나큰 가피와 은혜 그 빛나는 만남 위해 기도하옵니다.
언제나 ‘부처님 오심’ 그 기쁨으로 가득하여
오락의 삶 속에 한 송이 하얀 연꽃
피워내기 발원하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는 불기 2553년 (2009년) 4월 26일 (양력)에 부처님 오신 날 칠일 기도를 입재 및 연등을 만들기가 있고, 5월 3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 칠일 기도 회향 및 법요식을 갖습니다.

2553 번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불국사에서 일년 연등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일년 연등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나 한국 불국사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일년 연등 동참은 5월까지 접수 받습니다. 가족등 및 일인 일등 모두 접수 받습니다. 기도 동참금은 \$100.00 (한국은 십만원) 입니다.

법회소식 NEWS

-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 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법회 장소는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에 있는 Meeting Room 입니다. 주소는 55 Buford Hwy, Suwanee, GA 30024 이고, Center 연락처는 (404) 510-6957, 또는 (314)993-0185 입니다.
- 부다나라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이 불국회 정기 법회에 참석차 약 3 개월간 한국을 방문한 기간동안 토요일 법회와 일요일 법회를 예정대로 열고 법회 진행을 해 주시고 법회 참석들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주중에도 사찰을 관리 해주신 김숙향 불자님, 추형화 불자님 감사 드립니다.
- 2008 년 3 월 22 일에 불국사 후원회 정기 법회가 미국 불국사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기적 (Miracle)은 내가 만든다’라는 주제로 “역사 문화 기념관 공연장”에서 가졌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혜총큰스님도 함께 해주신 이날 법회에는 불자 가수들의 노래와 시가무 무용단의 무용 공연등 다채로운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불국사 (부다나라) 후원회원 약 400 여명이 모인 가운데 뜻깊은 법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 창립 7 주년, 한국 불국회 창립 8 주년을 맞이하여 ‘부다나라’ 창간호도 발간 되었습니다.
- 2008 년 3 월 28 일 선각 스님은 국제 포교사단에서 1 시간 30 분에 걸쳐 국제포교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날 강의를 듣기 위해 참석한 불자들은 교육을 거쳐 미래에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의 길을 가시는 분들입니다.
- 4 월 26 일부터 5 월 3 일까지 불기 2553 년 (2009 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7 일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은 5 월 3 일에 있습니다.
- 5 월 17 은 불광사 에서 ‘세인트루이스 연합 부처님 오신날’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불국사에서는 이날 참석한 불자님들에게 점심 공양으로 “김밥”을 준비 하기로 했습니다. 불자님들의 김밥 봉사를 기다립니다.

· 2009 년 3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56 번 계묘생 민정근, 165 번 경신생 홍세미, 312 번 신사생 송기성, 313 번 경자생 이득용, 314 번 계묘생 이경희, 315 번 기사생 이지나, 316 번 임신생 이지훈, 331 번 기유생 이백승, 332 번 임자생 추형화, 333 번 임오생 이재우, 334 번 을유생 이상훈, 346 번 무오생 신선양, 347 번 경신생 신동호, 345 번 계사생 임정숙, 421 번 병신생 조현우, 459 번 병신생 대우 김영준, 460 번 병신생 반야지 광정숙, 461 번 윤중숙, 469 번 무자생 김기준, 563 번 임인생 신현곤, 564 번 을사생 이규순, 565 번 신미생 신은철, 566 번 계유생 신은정, 567 번 계사생 정재훈, 568 번 갑오생 이승미, 569 번 정사생 정용옥, 570 번 신유생 최민형, 571 번 병술생 정예성, 572 번 갑신생 정예림, 575 신축생 권희정, 576 번 무신생 하정옥, 577 번 병자생 권민경, 578 번 무인생 권우중, 579 번 계사생 장보식, 580 번 정유생 박옥희, 581 번 경신생 장은숙, 582 번 계해생 장지희.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부처님 불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 무진생 능인 신동윤, 정유생 박찬홍.

한 평 불사: 을해생 무량화 문봉순, 무자생 문병현,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팀장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